

part
03

명제, 귀납논증, 연역논증, 반증, 개연성, 필연성, 논증의 참·거짓, 타당한 논증, 건전한 논증

교과서 확인하기 1

| PAGE 56

➔sum-up 1 (논증)은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나 증거로 이루어진 진술이다.

➔sum-up 2 논증이 성립하려면 진술에 (결론)과 (전제)가 모두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sum-up 3 논증을 이루는 진술인 명제는 (참·거짓)으로 판단될 수 있는 문장이어야 한다.

✓ 핵심 확인하기

- ❶ ○ 영희가 감기에 걸렸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논증이라 볼 수 있다.
- ❷ X 영희가 콧물을 흘리고 재채기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상황 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낸 글은 논증이라 볼 수 없다.
- ❸ X 단순히 인종차별의 의미를 밝히고 있는 글이다. 어떤 사태나 개념의 의미를 단순히 설명하거나 정의를 내리는 진술은 논증이 될 수 없다.
- ❹ X 평균수명이 길어진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상황 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낸 글은 논증이라 볼 수 없다.
- ❺ ○ 권위자의 말을 논거로 제시하여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논증이라 볼 수 있다.
- ❶ ○ ❷ X ❸ ○ ❹ X ❺ ○ 명제는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어야 한다. ❶은 거짓으로 판단되는 명제이다. ❸은 참으로 판단되는 명제이다. 그런데 ❷는 추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으로서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없다, ❹는 의문문이지만 부분적으로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사실 명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명제를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 문장 전체를 명제로 볼 수는 없다. ❺ 복합명제에 해당한다.

교과서 확인하기 2

| PAGE 62

➔sum-up 1 귀납 논증에서는 가설을 법칙으로 만들기 위해 (개연성)을 높임으로써 개별적 사례를 (일반화)한다.

➔sum-up 3 귀납논증을 통해 예측한 결론은 예측한대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sum-up 5 귀납적 추론에서는 근거가 되기에 충분한 (전제)

의 수를 결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

✓ 핵심 확인하기

- ❶ X 귀납 논증에서 결론은 개연성이 높음을 의미할 뿐이다.
- ❷ ○ 마지막 문단을 참조한다.
- ❸ ○ 1문단을 참조한다.
- ❹ ○ 흰 까마귀를 발견했을 때의 사례 참조한다.
- ❺ X 귀납 논증에서 신뢰성이 높고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어떤 종류의 자료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은 없다.

👍 고난도 어휘

3. 논거

교과서 확인하기 3

| PAGE 66

➔sum-up 2 연역논증에서는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은 반드시 참이 되며, (반증)이 불가능하다.

➔sum-up 3 연역 논증이 타당성을 지니려면 (결론)이 (전제)에 함축되어 있어야 한다.

➔sum-up 4 결론이 참인 논증이 되려면 (전제)가 참이어야 한다.

✓ 핵심 확인하기

- ❶ X 마지막 문단 참조: 지식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은 귀납 논증에 해당한다.
- ❷ ○ 연역 논증은 결론의 주장이 전제의 의미에 의거하고 있으므로 전제가 참이면 결론은 필연적으로 참이 된다.
- ❸ ○ 올바른 논증이 될 수는 없지만 타당성은 지닐 수 있다.
- ❹ ○ 타당성과 함께 건전성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 ❺ X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전제도 참이어야 한다.

✓ 핵심 확인하기

- ❶ 연역/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금식한다는 전제로부터 지금 기도 중인 그가 금식했을 것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으므로 연역 논증에 해당한다.
- ❷ 연역/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과 관계된다.'는 것은 선악 개념의 상대성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므로, 결론이 의미상 전제에 함축되어 있는 연역 논증에 해당한다.

- ㉓ 귀납/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의 수에 대한 통계, 즉 과거의 경험에 근거하여 미래에 일어날 사건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귀납논증에 해당한다.



| PAGE 70

01. 답 ⑤

해 1~2문단: 귀납 논증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전제로 하여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한다. 그런데 반례, 즉 전제에 없는 새로운 지식이 발견되면 일반화된 논증은 잘못된 논증이 된다.

오 ① 귀납 논증에 대한 설명이다. ② 연역 논증에 대한 설명이다. ③ 2문단: 아무리 치밀하게 관찰하여도 아직 관찰되지 않은 반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④ 1문단, 마지막 문단: 경험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사례를 생각할 수 없는 주장, 즉 연역은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다.

02. 답 ②

해 포퍼는 과학이 반증에 의해 발전하며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과학적 지식들은 이런 반증의 시도로부터 잘 견뎌 온 것들이라 보았다. 따라서 반증의 시도로부터 견딜 수 있는 것이라면 신뢰할 수 있는 과학지식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②는 반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포함한 진술이므로 포퍼의 견해를 표현할 말로 적절하다.

오 ① 포퍼는 귀납 논증이 언제나 반례로부터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③ 포퍼는 반증으로부터 견뎌 온, 즉 성공적인 과학적 지식의 의의를 높게 평가하였다. ④ 포퍼는 반증의 시도에 큰 의미를 부여했으므로 포퍼의 견해를 드러낼 적절한 진술로 볼 수 없다. ⑤ 포퍼가 중시한 것은 반증의 시도이다.

03. 답 ④

해 (ㄱ), (ㄴ)에서 (ㄷ)이 도출되는 과정은 연역 논증이고, <보기>의 (가)에서 (나)를 도출하는 과정은 귀납 논증이다. 1문단에 의하면 연역 논증이 아닌 귀납논증의 결론에서 지식이 확장된다.

오 ① 귀납 논증은 전제인 (가)가 참이어도 반증하는 사례가 나타나면 결론인 (나)가 거짓이 될 수 있다. ② (ㄴ)과 (가)는 관찰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므로 경험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지식은 (ㄴ)이 성립한다면 거짓임이 밝혀지지만, (가)에서는 검지 않은 사례가 발견될 수 있으므로 (가)만으로는 결론을 참이라 단정할 수 없

다. ⑤ ‘모든 까마귀가 검다’라는 과학적 지식은 (ㄱ)~(ㄷ)과 같이 연역을 통해 반증하는 방법으로 증명될 수 있다.



01. 답 ④

해 칼 포퍼의 반증주의에 따르면 어떤 가설을 세운 뒤 그 가설을 반박하는 경험적 사례가 발견되면 그 가설은 곧 거짓이 된다. 이에 따르면 현재 알고 있는 지식도 그것을 반박하는 사례가 발견된다면 곧 거짓이 되리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따라서 ④는 위 글에서 설명한 반증주의의 핵심을 가장 명쾌하게 드러낸 진술로 볼 수 있다.

오 ① 포퍼는 반증을 시도하여 참인 과학적 지식을 얻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따라서 거짓도 의미 있는 것이라는 말은 포퍼의 주장을 드러내기에 적절하지 않다. ② 어떤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동원된 경험적 사례들(가령 ‘검지 않은 까마귀가 존재한다’)은 모두 사실에 해당하므로 ②는 본문의 논지와 어긋난 진술이다. ③ 어떤 이론이 거짓으로 판명되는 것은 모두 반증 사례가 나타난 이후에 해당하는 일이다. 또한 반증되기 전까지 폐기되지 않을 뿐 사실로 단정 지을 수도 없으므로 ③은 적절한 진술로 볼 수 없다. ⑤ 포퍼가 중시한 것은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한 반증의 시도이다.

02. 답 ③

해 ‘어떤 버섯은 독버섯이다’라는 진술이 반증되려면 ‘모든 버섯에는 독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 ‘모든 버섯에는 독이 없다’는 진술 자체가 사실로 단정할 수 없는, 즉 반증 가능한 과학적 진술이므로 ‘어떤 버섯은 독버섯이다’라는 진술은 반증 가능한 진술로 볼 수 없다.

오 ① ② ④ ⑤ 경험(관찰이나 실험)으로부터 일반화된 사실로서 반증 가능한 과학적 진술에 해당한다. 해가 서쪽에서 뜨거나, 물이 90도에서 끓거나 물보다 밀도가 높은 기름이 존재한다거나, 아가미가 아닌 다른 기관을 통해 숨을 쉬는 물고기가 발견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03. 답 ⑤

해 반증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진술을 반박할 만한 사례가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살아남는’ 진술은 수많은 반증의 시도로부터 살아남은 진술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반증가능성이 큰 B가 A에 비해 살아남기 어려운 가설이라 보아야 한다.

04. 답 ②

해 ‘모든 포유류는 풀을 먹는다’는 사실과 ‘X라는 게는 옆으로 걷지 않는다’는 사실은 모두 관찰을 통한 경험적 사례에 해당한다.

오 ① (가)는 전제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연역추론에 해당한다. (A)는 반증과정, 즉 연역만으로 작동하는 과학 방법을 설명한 것이므로 (가)와 (A)는 결론을 이끌어낸 방식이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③ 경험을 전제로 이끌어낸 사실이므로 과학적 진술로 볼 수 있다. ④ (A)와 (가)에서는 ㄱ, ㄴ (나)에서는 ㄱ, ㄴ, ㄷ이 전제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전제가 참이 아니면 결론도 참이 될 수 없을 것이다. ⑤ (나)는 경험적인 검증과정을 거쳐서 결론에 도달한 귀납추론에 해당한다. 귀납추론으로부터 도출되어 인정받고 있는 과학적 지식은 반증의 시도로부터 살아남은 것이다.



기출 확인하기

3

01. 답 ④

해 3문단: 비트겐슈타인은 경험적 세계에 대해 언급하는 명제만이 의미 있는 것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명제일 뿐, 경험적 세계에 대해 언급한다고 해서 참인 명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 ① 1문단: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분석하고 비판하여 명료화하는 것을 철학의 과제로 삼았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문제를 철학의 중요한 과제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② 1~2문단: 비트겐슈타인은 ‘그림 이론’을 주장한 「논리 철학 논고」는 ‘빈학파’의 논리실증주의를 비롯하여 20세기 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③ 3문단: 비트겐슈타인의 ‘그림 이론’에서 ‘사태’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하여, 두 개념을 구별하였다. ⑤ 4문단: 비트겐슈타인은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신, 영혼, 형이상학적 주제, 윤리적 가치 등과 관련된 논의가 의미 없는 말들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02. 답 ⑤

해 3문단: 비트겐슈타인은 어떤 명제가 실재하지 않는 대상이나 사태가 아닌 것에 대해 언급하면 그것은 참 거짓을 따질 수 없는 ‘의미 없는 명제’가 된다고 보았다. 4문단을 참고하면 의미 없는 명제는 신, 영혼, 형이상학적 주제, 윤리

적 가치 등과 관련된 것이다. ⑤에서 ‘바람직한 삶’에 관한 진술은 윤리적 가치에 관한 명제이므로 의미 없는 명제에 해당한다. ①~④는 실재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의미 있는 명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03. 답 ①

해: 그림 이론에서는 ‘모형’과 ‘사건’의 관계에서 ‘모형’은 실제의 자동차와 사람, 즉 ‘사건’과 대응 관계에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도 이와 같다고 보고, ‘언어’는 ‘세계’와 대응한다고 하였다. 3문단에 의하면 언어는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는 사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명제들과 사태들은 각각 서로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모형 : 사건’은 ‘언어 : 세계’, 그리고 ‘명제 : 사태’의 관계와 같고 할 수 있다.

04. 답 ④

해 비트겐슈타인은 의미 있는 명제는 실재하는, 경험 가능한 사태에 대해 언급한 것이며 경험 가능하지 않은 대상을 언급한 말들은 논의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보기>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책의 내용은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책의 내용을 이해한 사람은 그 내용을 버려야 한다고 하였다. 윗글에 의하면 「논리 철학 논고」에서 다루는 그림이론은 언어와 세계의 대응관계를 다룬 것이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이 자신의 책을 말할 수 있는 것의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본 이유는 ④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오 ① 비트겐슈타인이 내세웠던 철학의 과제는 ‘언어의 문제’이다. 논리 철학 논고에서는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내세웠던 철학의 과제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비트겐슈타인이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서술하는 태도에 비판적이었다는 근거는 윗글에서 찾을 수 없다. ③ 논리적으로 가능한 사태는 의미 있는 명제에 해당하므로 말할 수 있는 것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비트겐슈타인이 논리 철학 논고에서 형이상학적 문제를 다룬 것은 아니다.



기출 확인하기

4

01. 답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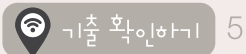
해 2문단: ‘건전한 추론’은 결론이 참이어서 타당한 추론이면서 전제도 실제로 참인 추론이다. <보기>에서 남자는 ‘우유를 마시면 키가 크다.’를 전제로 ‘농구 선수들은 우유를 많이 마셨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그런데

이 추론에 대해 여자는 ‘우유를 안 마시고도 키 큰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하면서 남자가 한 추론의 결론이 거짓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의 추론은 ‘건전한 추론’으로 볼 수 없다.

오 ② ‘개연성이 높은 추론’은 추론이 비록 타당하지 않지만 결론이 참일 가능성이 꽤 높은 것이다. ‘우유를 마셔서 키가 큰 사람보다 우유를 안 마시고도 키 큰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여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남자의 추론은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론의 개연성이 낮다. ③ 여자는 남자의 추론이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우유를 많이 마셔서 키 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결론이 참일 가능성도 일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타당하지 않은 추론은 어떤 추론의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는 추론을 말한다. ‘우유를 안 마시고도 키 큰 사람을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은 남자 추론의 결론이 거짓일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⑤ ‘추론2’는 결론이 실제로 참일 수는 있지만 반드시 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남자의 추론도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참이 되는 것은 아니다.

02. 답 ①

해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없는 추론을 ‘타당한 추론’이라고 한다. 그리고 타당한 추론이면서 전제가 실제로 참이까지 한 것은 ‘건전한 추론’이다.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으나 참일 가능성도 높은 추론도 있는데, 이는 ‘개연성이 높은 추론’이다.



01. 답 ⑤

해 (마)에서는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이 사용한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 낮고, 기능적 유사성 차원에서 유비 논증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간과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이는 동물 실험 유효성 주장이 갖는 문제를 유비 논증의 차원에서 살펴본 것이므로 ⑤에서 유비 논증의 차원을 넘어서 살펴보고 있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오 ① (가)에서는 유비 논증이 두 대상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도출하는 논증임을 밝히고 있고, 일상생활과 과학에서 유용하게 쓰인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② (나)

에서는 유비 논증을 활용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의 논리를 소개하고 있다. ③ (다)에서는 실험동물의 예를 들어 유비 논증이 높은 개연성을 갖기 위해서는 두 대상의 유사성이 크고 그것이 새로운 정보와 관련있는 유사성이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④ (라)에서는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유비논증과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을 근거로 들어 동물 실험을 비판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02. 답 ⑤

해 5문단: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에서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근거는 인간과 동물 모두 고통을 느끼는데 인간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서는 안 되고 동물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동물 실험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는 인간과 동물의 고통을 공평한 기준으로 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 ① 3문단: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 높기 위해 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은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어야 한다. ② 4문단: 인간은 자신의 고통은 (유비논증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느낄 수 있다. ③ 3문단: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인간과 꼬리가 있는 실험동물은 꼬리의 유무에서 유사성을 갖지 않지만 그것은 실험과 관련이 없는 특성이므로 무시한다. ④ 2문단: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유비 논증을 통해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유효하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중요한 이익을 준다고 주장한다.

03. 답 ③

해 4문단: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의 입장을, 인간과 실험동물의 기능적 차원에서의 유사성에만 주목하고 그 기능을 구현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이 동물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어 비판하고 있다.

오 ① 4문단: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기능적 유사성이 있어도 인과적 메커니즘은 동물마다 다르다고 생각한다. ② 3-4문단: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의 논거는 인간과 동물의 기능적 유사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④ 4문단: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인간과 동물 간에 유사성이 존재하더라도 인과적 메커니즘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⑤ 5문단: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이 인간과 동물의 기능적 유사성에 주목하듯이 동물도 인간

처럼 고통을 느낀다는 기능적 유사성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04. 답 ②

해 ③는 인간을 대신하는 실험 대상, ⑥는 인간과 실험 대상 간의 유사성, ⑨는 실험 대상으로부터 얻은 반응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보기>에서 ‘어떤 개’는 실험 대상, ‘비슷하게 생긴’은 두 대상 간의 유사성, ‘몹시 사납고 물러는 버릇’은 실험 대상에서 얻은 반응 결과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보기>에서 ‘다른 개’는 실험 대상에서 얻은 반응 결과를 적용하는 대상으로서 윗글에서 (실험동물이 아닌) ‘인간’에 대응된다는 것이다.



01. 답 ⑤

해 4문단: 현대 철학자들은 현대 과학의 성과를 반영하는 철학적 탐구를 통해 새로운 설명 이론을 제시하기 위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는 언급이 있을 뿐 켈文的 설명 이론이 현대 과학의 성과를 받아들인 결과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오 ① 2문단: 켈文的 설명 이론은 피설명항이 보편 법칙의 개별 사례로서 마땅히 일어날 만한 일이었음을 보여 주기 위한 설명의 요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② 3문단: 켈文的 설명 이론은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추상적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상식적 판단과 충돌하기도 하는 문제가 있다. ③ 2문단: 설명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이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논증은 전제로부터 결론이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형식을 띤다. ④ 4문단: 켈文的 인과적 설명 이론은 켈文的 이론보다 우리의 일상적 직관에 더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

02. 답 ④

해 4문단에서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수히 많고 연쇄적으로 서로 얹혀 있기 때문에 설명 이론에 인과 개념을 도입하려면 ㉠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예를 들어 결과를 일으킨 원인을 골라내고 연결하는 철학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므로 ㉠은 결과를 야기한 정확한 원인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오 ① 4문단: 설명 개념과 인과 개념 모두 불명료하나, 둘 중 어느 것이 더 불명료한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② 4문단: 원

인과 결과가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철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③, ⑤ 4문단: 켈文은 피설명항을 결과로 보고 이를 일으키는 원인을 밝히는 것이 설명이라고 보았다. 피설명항에 원인을 제시하는 명제가 들어갈 수 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03. 답 ④

해 2문단: 켈文的 이론에 따르면 설명을 하는 부분인 설명항은 전제에, 설명되어야 하는 부분인 피설명항은 결론에 해당한다. [물음] ‘평면거울 A에 대한 광선 B의 반사각은 왜 30°일까?’를 참고하면, <보기>의 ㄷ은 피설명항에 놓여야 한다. 또한 설명항에는 보편법칙 또는 보편 법칙의 역할을 하는 명제가 하나 이상 있어야 하는데, <보기>의 명제들 중 보편 법칙에 해당하는 것은 ‘광선을 반사하는 평면에 대한 광선의 반사각은 입사각과 같다.’는 ‘ㄹ’이다. 또한 보편 법칙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맥락을 나타내는 선행 조건이 설명항에 하나 이상 있어야 하는데, <보기>의 명제들 중 이에 해당하는 것은 ‘평면거울 A에 대한 광선 B의 입사각은 30°이다.’라는 ‘ㄴ’과 ‘A는 광선을 잘 반사하는 평면거울이다.’라는 ‘ㄱ’이다.



01. 답 ②

해 1문단에 의하면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는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실험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2문단에 의하면 콰인은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해 모두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오 ① 1문단에서 논리 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질문에 대해 ‘예’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4문단에서 콰인은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을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질문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답할 것이다. ③ 1문단에 의하면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해 ‘예’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3문단에 의하면 콰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를 부정하였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해 ‘아니요’라고 답할 것이

다. ④ 1문단에 의하면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는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이를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해 ‘예’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2문단에 의하면 콰인은 가설만 가지고서는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이 질문에 대해 ‘아니요’라고 답할 것이다. ⑤ 1문단에 의하면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해 ‘예’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4문단에 의하면 콰인은 지식을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으로 구분하였지만 이 둘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종류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해 ‘아니요’라고 답할 것이다.

02. 답 ④

해 3문단에 의하면 콰인은 “총각은 총각이다.”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라는 ‘동어 반복 명제’와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명제’를 통해 종합 명제와 구분되는 분석 명제가 없음을 주장한다. 콰인에 따르면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명제’는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 명제이다. 한편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와 같은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명제가 분석 명제인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이는 이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어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 개념에 의존하게 된다. 그리고 이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순환론에 빠진다.

오 ① 1문단에 의하면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한편, 예측이 맞을 경우에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새로운 지식이 된다고 한 것은 논리 실증주의자이다. ② 3문단에 의하면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은 동어 반복 명제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처럼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라고 보았다. 따라서 총각을 한 명 한 명 조사하는 경험적 방법으로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가 분석 명제임을 밝힌다는 것은 적

절하지 않다. ③ 4문단에 의하면 콰인은 지식을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인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상정한다. 그리고 이 둘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콰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⑤ 3문단에 의하면 동어 반복 명제는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이며,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는다.

03. 답 ⑤

해 5문단에 의하면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나 그와 같은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⑥가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④가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③을 수정하여 ④를 받아들일 것이다.

오 ① 2문단에 의하면 콰인은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예측인 ⑥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그 원인을 ④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4문단에 의하면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대부분의 경우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지만 실용적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지식의 수정은 실용적 필요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③ 2문단에 의하면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고 하였으므로 ③과 ④가 모두 합쳐져야 예측인 ⑥가 도출된다고 할 수 있다. ④ 4문단에 의하면 콰인은 지식을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하는 주변부 지식을 상정하였다. 또한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수정을 고민하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⑥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⑥는 ③의 주변부에서 경험과 직접 충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04. 답 ⑤

해 5문단에 의하면 총체주의는 논리학의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 명제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총체주의는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해도 중심부 지식 중에는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는 종류가 다른 지식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오 ① 2문단에 의하면 총체주의는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보고 가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예측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진다고 해도 가설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입장은 총체주의의 입장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4문단에 의하면 총체주의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있어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는 총체주의의 입장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4문단에 의하면 총체주의는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4문단에 의하면 총체주의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한다고 보았다. 이는 총체주의의 입장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part 04

천명, 공자, 인(仁), 덕치, 효제충신(孝悌忠信), 맹자, 고자, 성선설, 성무선악설, 사단(四端)

교과서 확인하기 1

| PAGE 88

sum-up 2 (천명)이라는 이데올로기는 반역행위와 혁명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활용되었다.

sum-up 3 공자는 (형이상학적 이론)을 거부함으로써 건국 세력의 자의적인 독재정치에 대한 저항의 뜻을 나타냈다.

sum-up 4 공자는 (덕치)를 통해 통치자의 올바른 역할을 제시한다.

sum-up 5 (인)은 공자사상의 핵심이다.

✓ 핵심 확인하기

- ① X 공자는 인간의 본성과 같은 형이상학적 주제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비판했다. 참고로 맹자의 성선설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② O 두 사람이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려면, 즉 인을 이루려면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이나 덕목이 필요한데, 효·제·충·신(孝·悌·忠·信)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 ③ X 덕치는 통치자의 올바른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 ④ X 천(天)은 형이상학적 주제에 해당한다. 공자는 형이상학적 이론을 거부함으로써 건국세력의 독재정치에 대한 저항의 뜻을 나타냈다.
- ⑤ O 1~2문단을 참조한다.

🔍 문제로 확인하기

답 ⑤

해 대화에서 B는 공자이다. 공자는 형이상학적 주제들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비판하고, 인의(仁義)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도덕적 기강을 바로잡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했다. 그러므로 내세보다 현세의 도덕 실현에 관심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 ② 공자는 형이상학적 주제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비판했다. 그리고 초월적 존재보다 산 사람에 대한 공경을 강조한다. ④ 공자는 도덕적인 삶을 강조한다. 참고로 ④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을 강조한 것이다. ①③ (참고로) 각각 도가, 불가 사상의 입장이다. 공자는 유가의 대표사상가이다.